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1, Vol. 30, No. 1, 349-357

〈Brief Report〉

한국판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ality Disorder Scale의 확인적 요인분석: 임상표본을 대상으로

임 남 열　김 정 호†　김 학 렬　박 상 학　김 상 훈　이 문 인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본 연구는 정신과에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적용하여 한국판 IIP-PD의 요인구조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 3개의 요인구조를 대안 모형으로 설정하여 293명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국판 IIP-PD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서로 상관이 있는 5개의 일차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5개의 일차 요인과 하나의 이차 요인으로 구성된 위계적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와 달랐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성격장애를 대표하는 잠재적 요인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stage 1'에서 성격장애를 선별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문항조정 등을 통해서 성격장애를 측정하는데 효용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겠다.

주요어 : 한국판 IIP-PD, 확인적 요인분석, IIP, 위계적 모형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정호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 광주시 동구 서석동 588
Fax : 062-225-3659 / E-mail : junghok@hanmail.net

www.kci.go.kr

성격장애의 평가는 주로 Personality Diagnostic Questionnaire-Revised(PDQ-R)(Hyler, Skodol, Oldham, Kellman, et al., 1992),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MMPI; Morey, Waugh, & Blashfield, 1985)와 MMPI-2(Graham, 1993)에서 얻을 수 있는 성격장애 척도들이 사용되며, 이들 도구들이 성격장애의 평가에 유용하기는 하지만 실시, 채점 및 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임상 장면에서 성격장애의 효과적인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애의 존재 유무와 심각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격장애 양상을 수량화하고 실시와 채점을 간편하게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Pilkonis, Kim, Proietti 및 Barkham(1996)은 성격장애 환자들이 만성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보인다는 가정 하에 임상적 장면에서 'stage 1' 선별 절차(Dohrenwend, 1990)로 사용할 수 있도록 IIP(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에서 47개의 문항을 추출하여 성격장애 환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IIP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ño 및 Villaseñor(1988)가 임상 장면에서 성격장애를 비롯한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핵심적 문제 중 하나가 대인관계라는 점에 근거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정신과 외래 환자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5점 척도의 127개 문항을 만들었으며, 이를 요인분석하여 비주장성, 비사회성, 비친밀성, 비순종성, 과책임성 및 과통제성 등 6개 하위 척도로 구분하였다.

Pilkonis 등(1996)은 145명의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IIP를 실시하여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대인관계 문제 특성을 반영한 47개의 문항들을 추출했으며, 대인적 과민성, 대인적 비수용성, 공격성, 사회적 인정욕구, 사회성부족 등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된 성격장애 척도(IIP Personality Disorder Scales, IIP-PD)를 구성하였다. 이 5가지의 척도는 성격장애와 성격장애가 아닌 환자를 구분하는 '대인적 과민성(Interpersonal Sensitivity, 강한 정동성과 반응성을 반영함)', '대인적 비수용성(Interpersonal Ambivalence,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일 또는 사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무기력을 반영함)', '공격성(Aggression, 다른 사람에 대해 적대적임을 반영함)' 척도와 군집 C 성격장애(cluster C PD)와 다른 환자들을 구분하는데 유용한 '사회적 인정욕구(Need for Social Approval,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을 반영함)' 및 '사회성 부족(Lack of Sociability,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을 어려워하고 사회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함)'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Pilkonis 등(1996)이 IIP-PD를 개발한 이후 IIP-PD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특히 Kim, Pilkonis와 Barkham(1997)은 5곳의 임상 장면에서 얻어진 1004명의 표집을 가지고 5개의 하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7가지의 대안적 모형을 가정한 후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했으며, 적합도 검증에는 환자들의 응답이 정적 편포를 보였기 때문에 비정규분포를 수정할 수 있는 Satorra-Bentler Scaled Statistic (S-Bχ^2)과 Corrected Comparative Fit Index(CFI), S-Bχ^2를 자유도로 나눈 값(S-Bχ^2/df)을 사용했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① 5개의 일차 요인과 하나의 이차 요인으로 구성된 위계적 요인 모형, ② 상관을 가정한 5개의 일차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 및 ③ 상관을 가정한 두 개의 이차 요인과 5개의 일차 요인으로 이

www.kci.go.kr

루어진 위계적 요인 모형이 CFI값 .93 이상으로 적합도가 괜찮았으며, Hierarchical Model Comparison을 통해서 상관을 가정한 두 개의 이차 요인으로 이루어진 위계적 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격장애 환자들을 선별하는데 유용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carpa, Luscher, Kadee 등(1999)은 비임상적 장면에서도 IIP-PD를 이용한 성격장애 선별에 대한 연구에서 IIP-PD가 성격장애 선별에 매우 유용하며, IIP-PD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Kim 등(1997)의 연구에서 5개의 일차 요인과 한 개의 이차 요인을 가지고 있는 위계적 모형이 가장 적합하게 나왔더라도 성격 장애를 내현화 차원과 외현화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Scarpa 등(1999)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적 과민성', '대인적 비수용성', '공격성'의 세 척도가 주로 드라마틱하거나 표현적, 반응적, 공격적인 문제에 민감한 외현적 행동 차원을 반영하고 경계선 성격장애와 연기성 성격장애와 연관이 있으며, '사회적 인정욕구'와 '사회성 부족'의 두 척도는 사회적 불안과 연관된 내현적 행동 차원을 반영하고,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와 연관이 있었다.

국내에서 IIP-PD의 요인구조를 다룬 연구는 김영환 등(2002)의 KIIP-PD의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 단 한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들은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IIP)에서 추출한 문항들을 원판 IIP-PD에 적용된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몇몇 문항(8개 문항)의 경우 원판과 다른 요인에 부하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문항들이 5개의 해당 요인에 원판과 동일하게 부하되었다.

IIP-PD가 성격장애를 진단하는데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보이나, 국내에서 IIP-PD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IIP-PD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정신과 장면에서 임상표본들이 IIP-PD 문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수집된 IIP-PD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여러 요인모형들을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임상표본들을 대상으로 IIP-PD를 실시한 후 얻은 자료에 확인적 요인 분석을 적용함으로서, Kim 등(1997)의 연구에서 적합하다고 보고되었던 3가지 대안적인 요인 모형들을 평가해 보고, 한국의 임상 장면에서는 어떤 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지를 확인해보았다.

방 법

지방 소재 대학병원 정신과를 방문한 31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IIP-PD를 실시하였다. 그 중 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모두 같은 항목에 답한 경우 등)의 20개를 제외하고 총 293명(남자 175명, 여자 79명, 무기명 39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들의 연령은 평균 34.26세(SD= 12.63세)였으며, 범위는 18세부터 69세까지 다양했다. DSM-Ⅳ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내담자들의 정신과적 진단을 분류한 결과, 기분장애 16.7%(49명), 정신분열병을 포함한 정신병적 장애 16.0%(47명),

www.kci.go.kr

불안장애 15.4%(45명), 적응장애 8.2%(24명)이었으며, 기타 장애가 24.9%(73명)이었고, 19.5%(57명)은 진단 불명이었다.

한국판 IIP-PD는 대인관계 문제를 바탕으로 성격 장애 집단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척도로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47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Pilkonis et al, 1996),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원판 IIP-PD를 저자들 및 2개 국어가 가능한 원어민이 함께 번역과 역번역 작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한국판 IIP-PD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Cronbach α는 .970이었다.

Kim 등(1997)의 IIP-PD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에서 여러 대안 모형 중 3개의 모형만이 CFI 값이 .93 이상으로 적합도가 괜찮았으며, 나머지 모형들에서는 저조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3개의 모형들에 대해서만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첫 번째 모형은 하나의 이차 요인과 5개의 일차 요인으로 구성된 위계적 요인 모형이며, 두 번째 모형은 상관을 가정한 5개의 일차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이고, 세 번째 모형은 상관을 가정한 두 개의 이차 요인과 5개의 일차 요인으로 이루어진 위계적 요인 모형이었다.

3개의 대안적 모형들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입각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으며, AMO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여 각각의 모형들을 비교했으며, 둘째,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를 토대로 대안 모형들 중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밝혀진 모형에 대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산출된 표준화된 추정치(standardized estimates)를 대입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통계분석시 관측변수가 30개 이상일 경우 추정해야할 모수의 숫자가 늘어나 측정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20개의 변수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Bentler & Chou, 1987, 김원표, 2006). 문항수가 47문항으로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항 결합(item parceling)을 통하여 각 척도에 3개씩 15개의 지표로 재구성했으며, 각 지표 안에 포함된 문항은 무선 할당된 후 각 문항의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사용되었다. item parceling된 변수들이 단일차원이 아닐 경우 잘못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선행연구들에서 단일차원임이 확인이 되었고, 개념에 대한 관계계수가 주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했다.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정규분포 검증에서 비정규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비정규분포에서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Bollen-Stine χ^2(Bollen & Stine, 1992)를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모형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AMOS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적합도 지수 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χ^2 검증 외에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져 있는 nonnormed fit index(Bentler & Bonett, 1980; NNFI)와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Steiger & Lind, 1980; RMSEA), 그리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는 Comparative fit index(Bentler, 1990; CFI)를 사용하였다. NNFI와 CFI는 대략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www.kci.go.kr

것으로 간주되며, RMSEA 값이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결 과

3개의 대안 모형들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3의 IS변인에서 오차분산이 음수로 나타나는 Heywood case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오차 분산값을 0.005로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한 결과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3개의 대안 모형 모두 $P<$ .001로 Bollen-Stine χ^2검증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검증은 모형이 변인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너무 엄격한 가설을 영가설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가설을 아주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과,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표본이 커질수록 영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제한점이 있다(홍세희, 2001; Cudeck & Henly,

표 1. 대안 모형들의 적합도

대안적 모형	χ^2	*df*	NNFI	CFI	RMSEA(90% CI)
모형 1	420.59	86	.909	.925	.115(.105-.127)
모형 2	284.41	80	.940	.954	.094(.082-.105)
모형 3	374.94	85	.920	.935	.108(.097-.119)

주. NNFI = non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모형 1 = 하나의 이차 요인과 5개의 일차 요인; 모형 2 = 상관을 가정한 5개의 일차 요인; 모형 3 = 상관을 가정한 두 개의 이차 요인과 5개의 일차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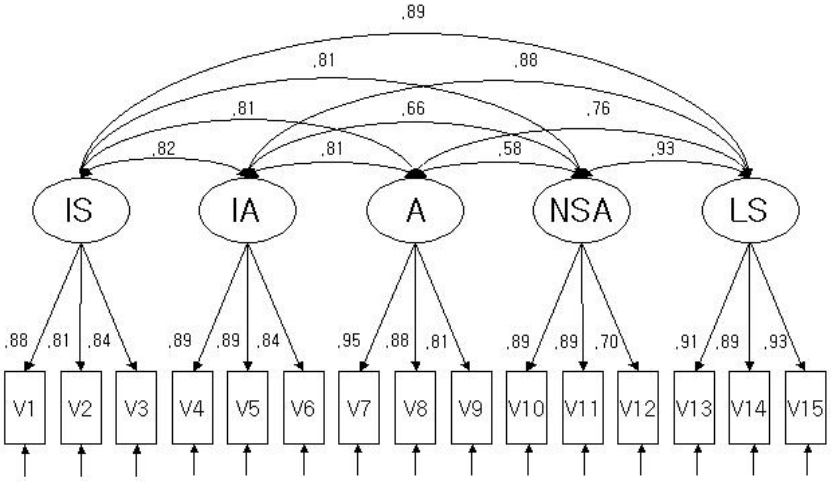

그림 1. 일차 5요인 모형과 그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www.kci.go.kr

1991; Hong & Cho, 1999). χ^2 검증에 이러한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χ^2 검증의 결과를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고, 그 대신에 앞서 언급했듯이 모형검증에 유용한 지표로 알려진 NNFI, CFI 및 RMSEA 등 세 가지 적합도 지수들의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이 NNFI와 CFI 모두 적합한 값을 보였으나, RMSEA에서는 모형 2만이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여, 일차 5요인 상관 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자료를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간명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판단된 일차 5요인 상관 모형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각 개별 문항들과 해당 일차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들은 모두 유의미하였다(범위: .58 ~ .9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IIP-PD의 요인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임상장면에서의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IIP-PD를 실시한 후 Kim 등(1997)의 연구에서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보인 3가지 대안적 모형들의 적합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다른 모형들에 비해 상관을 가정한 5개의 일차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를 기술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하고 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을 가정한 5개의 일차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은 Pilkonis 등(1996)이 처음 IIP에서 IIP-PD를 추출했을 때의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개발된 모형이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IIP-PD의 문항들을 '대인적 과민성', '대인적 비수용성', '공격성', '사회적 인정욕구', '사회성 부족'이라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요인들에 기초한 척도 점수들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각각의 요인은 고유의 측정 내용을 가지고 있다. '대인적 과민성(IS)' 요인은 타인에 대한 반응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IS 척도의 점수가 상승할수록 정동의 변화가 크고 타인에 대한 반응성이 높음을 나타내며, '대인적 비수용성(IA)'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일 또는 사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무기력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공격성(A)' 요인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적대적인가의 정도를 알려주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인정욕구(NSA)'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이 높으며, '사회성 부족(LS)' 요인의 점수가 상승될수록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을 어려워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각각의 점수를 토대로 성격 장애 양상과 정도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임상장면의 초기 면접시에 성격장애를 선별하는데 매우 유용한 평가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Kim 등(1997)의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이었던 하나의 이차 요인과 5개의 일차 요인으로 구성된 위계적인 요인 모형은 NNFI와 CFI값에서는 적합한 범위였으나, RMSEA에서 .10 이상의 값을 보여 나쁜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 임상 집단의 경우, 일반적 성격장애 요인으로 대표되는 이차 요인이 일반화될 수 없었다. 이차 요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IIP-PD의 총점을 사용할 수 없음을

www.kci.go.kr

뜻하고 적어도 한국의 임상장면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여 성격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원판에서 사용된 문항의 구성이 한국인의 성격 특성에 맞지 않았을 수 있다. 김영환 등(2002)의 KIIP-PD의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에서 47개 중 12개의 문항이 원판과 다른 요인에 부하된 것을 생각해 볼 때, 똑같은 행동이라도 다른 심리적 기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오현숙, Goth, K., & 민병배 2008). 본 연구는 brief report로써 단순히 IIP-PD의 이론 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만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판과 같은 구성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향후 한국과 미국의 심리학적인 비교문화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한국인의 특성에 맞지 않는 몇몇 문항들을 조정을 한다면 더욱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IIP-PD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의 연구에서도 단 하나의 대학병원 정신과에 방문한 환자들 대상의 한정된 표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들에서는 환자군을 1축 장애 및 2축 장애(성격장애)로 구분하거나, 정신병적 상태 여부로 구분하는 등 더 세분화된 표본을 구성하여 각 집단에서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성격적 특성 및 성격장애 양상을 수량화하는데 필요한 규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일반 정상군을 대상으로 한 규준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성격장애를 판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도구들 중에 성격장애 양상을 수량화하거나 실시 및 채점이 비교적 간편한 것들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한국판 IIP-PD의 요인구조에 대한 여러 모형들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정신과 임상표본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했다는 것이 성과이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임상 장면에서 성격장애 양상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작업을 통해 분할점수(cut-off score)를 공식화하는 등의 연구들이 향후에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391-411

김원표 (2006).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분석. 서울: 사회와 통계

오현숙, Goth, K., & 민병배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문화적 배경과 국가간 비교: 독일과 한국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91-407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

www.kci.go.kr

석. 2001년도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교재, 임상심리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Bentler, P. M., & C. P. Chou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rach, 16,* 78-117

Bollen, K.A. and R. Stine. (1992). "Bootstrapping Goodness of Fit Measur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1,* 205-29.

Cudeck, R., & Henly, S. J. (1991). Model selection in covariance structures analysis and the "problem" of sample size: A clarific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9*, 512-519.

Dohrenwend, B. (1990). "The problem of validity in field studies of psychological disorders" revisited. *Psychological Medicine*. *20,* 195-208.

Graham, J. R. (1993). *MMPI-2: Assessing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yler, S. E., Skodol, A. E., Oldham, J. M., Kellman, H. D., et al. (1992). Validity of the Personality Diagnostic Questionnaire-Revised: A replication in an outpatient sample. *Comprehensive Psychiatry*. *33*. 73-77

Hong, S., & Cho, Y. (1999). Latent structure of the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An application of hierarchica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Reports, 84*, 1303-1314.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A.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Kim, Y., Pilkonis, P. A., & Barkham, M. (1997).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personality disorder subscales from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 284-296.

Morey, L. C., Waugh, M. H., & Blashfield. R. K. (1985). MMPI scales for DSM-Ⅲ personality disorders: Their derivation and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245-256

Pilkonis, P. A., Kim, Y., Proietti, J. M., & Barkham, M. (1996). Scales for personality disorders developed from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0,* 355-369.

Scarpa, A., Luscher, K. A., Kadee, J., Smalley, M. S., Pilkonis, P. A., Kim, Y., & Williams, W. C. (1999). Screening for personality disorders in a nonclinical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3,* 345-360

Steiger, J. H., & Lind, J. M. (1980). *Statistically 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Stone, M. H. (1990). *The fate of borderline patients.* New York: Guilford.

원고접수일 : 2010. 10. 12.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0. 12. 9.
게재결정일 : 2010. 12. 25.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1, Vol. 30, No. 1, 349-357

〈Brief Repor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Korean Versio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ality Disorder Scales: Examination of a Clinical Sample

Namyoul Lim **Jungho Kim** **Hakryul Kim**
Sanghag Park **Sanghoon Kim** **Moonin Lee**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ality Disorder Scales(K-IIP-PD) by applying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psychiatric patients. To evaluate the goodness of fit of three alternative models taken from factor structures which had been previously reporte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K-IIP-PD with respect to a group of 239 patien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odel with five first-order intercorrelated factor was the best fit for the data. This result differed from previous US-based studies which had reported that a hierarchical model with 1 second-order factor and 5 first-order factors was the best fit. Unlike the US-based studies, potential factors representing character disorders were not found here: however it seems that the model will be useful in sorting character disorders in 'Stage 1', and its utility will be further developed in measuring the level of character disorders by modifying items in the future.

Key words : K-IIP-P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IP, Hierarchical model

www.kci.go.kr